

90년 역사의 대선주조(주),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빛낸다

부산의 유일한 소주 제조사, 대선주조(주). 1930년 문을 연 뒤 90여 년간 한결같이 부산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향토 기업이다. 그들은 ‘지역 최고 제품’이라는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핵심 가치로 삼으며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대선주조(주) 기장공장 안전환경팀을 만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조은미 부산지역본부 사내기자 사진 김재이

대선주조(주) 안전환경팀

소음노출평가 컨설팅



혁신적인 작업환경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선주조(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환경팀을 총괄하는 최근호 팀장은 “우리 기업은 1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가 많아 고령노동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산업보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선주조(주)는 2007년부터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컨설팅을 받아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정기적으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해 공정별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K-스마트등대공장’ 사업에도 참여해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로봇을 활용한 물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작업자의 신체 부담을 크게



줄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반복 작업에서 오는 근골격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를 보았다.

안전환경팀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우진호 계장은 “오래전부터 병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소터(Sorter)와 통합 컨베이어 라인을 설치해 설비를 완전히 자동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이 크게 줄었고, 생산성도 20~30% 향상됐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장 내 폐수,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관리 담당 류승현 과장 역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위험 요소를 안전환경팀이 꾸준히 회사에 전달해 왔고, 회사도 이를 적극 수용해 작업환경을 개선해 왔습니다. 덕분에 현장 노동자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대선주조(주)는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안전을 위한 동행, 협력 기반의 안전보건 시스템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대선주조(주)의 생산 효율은 자연스럽게 향상됐다. 그러나 그에 따라 공장 내 소음이 증가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컨베이어 속도가 빨라지면서 병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커졌고, 현장 노동자들이 더 큰 소음에 노출되면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선주조(주) 안전환경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소음노출평가 컨설팅을 의뢰하고 적극적인 개선에 나섰다. 가장 먼저, 현장 노동자가 생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이어서 협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업환경을 정밀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소음이 발생하는 위치와 원인을 명확히 파악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선주조(주)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으로 작업장 소음을 측정하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청력 검사 및 개인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며 청력 보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소음노출이 많은 작업자에게는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설비 운전조건을 조절하거나 소음이 적은 장비로 교체하는 등 공학적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현장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진호 계장은 “현재도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6개월마다 저희 공장을 방문해 소음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 대안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직원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소음 발생 설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대선주조(주)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업장에 적용하고, 컨베이어 하단에 물받이를 설치해 미끄러짐 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안전한 일터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소음 관리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위험 요소까지 제거하려는 대선주조(주)의 다각적인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호 팀장 역시 “현장이 안전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며 안전의 본질적인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지역 사회와 함께 여는 안전보건 문화의 새 지평

앞으로 대선주조(주)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안전보건 문화 실천 추진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실제로 2023년에는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술잔은 꺾어도 안전은 꺾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전 슬로건을 소주병 라벨에 인쇄해 배포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부산동부지청은 대선주조(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협력사와의 상생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며,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다.

대선주조(주)는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진호 계장은 “올해는 안전보건 문화 확산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의 실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소음 저감 활동과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며, 모든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안전보건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대선주조(주)의 이러한 노력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대선주조(주)가 안전보건 분야에서 펼칠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 현장을 바꾸는 기업의 안전보건 철학 ”

대선주조(주) 안전환경팀

최근호

팀장



Mini Interview

노동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기업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미리 막는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환경팀은 이런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 상황을 끊임없이 살피며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안전, 환경, 보건 관리 시스템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장 노동자 각자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면서 필요한 개선 사항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선주조(주)는 항상 모든 임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만들기 에 주력해 왔으며, 그것이 기업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거듭나기 위해 안전보건 문화 발전에 전념할 계획입니다.